

# 『아론의 지팡이』(*Aaron's Rod*)에 나타난 남성상

박정길\* · 김동율\*\*

## I. 서론

1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한 서구의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한 『아론의 지팡이』(*Aaron's Rod*)는 작가의 문학적 생애중 중간시기의 작품으로 대전의 문명적 위기의 원인을 지도력 결여로 보고 강력한 지도력을 추구한 'leadership novels' 또는 정치소설이라 불리는 일련의 작품들 중 첫 번째이다. 『캥거루』(*Kangaroo* 1923), 『깃털 달린 뱀』(*Plumed Serpent* 1926)과 함께 'leadership'이라는 공통적인 topic을 다룬 작품으로 보고 있는(Becker 140) 'leadership novels'에 대한 비평가들의 평가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돋보인다는 리비스(Leavis 32)의 지적도 있지만 사상에 중점을 둔 탓에 대체로 초기 작품에 비해 예술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운 부정적인 것이다.

1917년에 영국에서 집필을 시작하여 1919년경에 중단하였다가 1920년 이후의 이태리 여행을 바탕으로 재 집필하여 1921년도에 완성한 『아론의 지팡이』 역시 소설이라기보다는 여행담(travelogue)라는 지적을 받았고(Pinion 183) 모든 사건이나 인물들이 어떤 구심점이 없이 나열됐다는 평을 받는다(Hobsbaum 75) 등 실패작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이 작품속의 두 주인공인 릴리(Lilly)가 아론시손(Aaron Sisson)에게 주는 조언 중에서 'A new place brings out a new thing in a man'이라는 언급처럼, 여행이 지니고 있는 참다운 속성에 걸맞게, 로렌스(D. H. Lawrence)의 작품 세계에서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남녀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인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추구의 여정을 드러내고 있다. 로렌스에게서 여행은 사실 전후 영국에 대한 환멸과 Ranim이라는 그가 주창한 이상향의 건설을 위한 것이고 이런 양상은 여행 이후의 거의 모든 작품의 배경이 영국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작품들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영어과 교수

\*\* 춘해대학 전임강사(영문학 전공)

속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근대문명이 상실한 생명의 근원과 자아존재를 복원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작자의 문학세계처럼 이 작품은 사회적 자아의 탐색과 실험가정은 한편으로 새로운 사회체제의 구축과 사회질서를 탐색하는 사고 모험(thought adventure)이라 할 수 있다(Murry 173).

특히 남성원리와 여성원리를 대부분의 작품에서 그 토대로 하고 있는 로렌스는 이 작품으로써 몰락으로 가는 서구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강력한 지도력(leadership)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아의 추구를 하며 새로운 작가 의식을 전개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인다.

이런 작가의 변신의 가능성은 이미 초기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로렌스의 작품 활동 시기를 그가 여행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구분해 볼 때, 여행 이전의 마지막 작품인 『사랑에 빠진 여인』(*Woman in Love* 1921)의 말미에서 보면 로렌스의 인간 관계에 대한 추구의 여정이 그의 다음 작품에서는 어떻게 전개되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벌킨(Birkin)은 울수라(Ursula)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You are enough for me, as far as a woman is concerned. You are all women to me.  
But I wanted a man friend, as eternal as you and I are eternal. (541)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이러한 벌킨의 바람이 아론과 릴리(Liliy)라는 인물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아론의 지팡이』는, 로렌스의 모든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인간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아론이라는 인물의 여정을 따라 답습해 본다면, 로렌스의 전 작품 속에서 이 작품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 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베커(Becker)의 지적대로 지도력(leadership)의 구현이라는 점에만 국한시키는 것보다는(140), 아론의 여정을 따라 그 여정이 비롯된 원인과 그 여정이 이후로 어떻게 전개되고 그 결과로서 도출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작품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이 작품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내는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서는 아론의 여정을 구질서를 나타내는 'womanhood'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manhood'를 찾아가는 상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II. Womanhood의 거부.

아론은 탄광 회사에 근무하는 3명의 자녀와 로티라는 아내를 가진 33세의 가장으로 악단과 협연을 할 정도의 플루트와 피콜로에 탁월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설정은 로렌스의 초기 작품인 『침입자』(*The Trespasser*)의 시그문드(Sigmund)와 무척 유사하다. 또한 시그문드가 가정을 버리고 애정 도피를 하듯이 아론도 자신의 가정을 버린다. 그러나 이 두 작품에서의 차이점은 시기가 크리스마스라는 점 외에 아론에게는 그것이 애정 도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침입자』에서의 시그문드의 탈출이 애인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이라는 속박에서의 탈출이라면 아론의 탈출은 가정 외에 여성 자체에서의 탈출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에게는 자신과 같이 도피를 하는 'lover'도 없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여성은 바로 자신의 부인인 로티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192). 이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로렌스의 의식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1장 'The Blue Ball'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려다 아론의 딸인 밀리세트(Millicent)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단단한 유리 공을 일부러 깨뜨리고는 당황함과 함께 만족스런 표정을 짓자 아론은 집을 떠나게 된다. 결혼한지 12년이 지나도록 아내와의 팽팽한 긴장감과 딸들과의 소외감이 집을 떠나게 된 동기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이는 일상에서의 도덕으로 해명되지는 않는다. 유리공이 깨어진 것은 그 동안의 긴장상태가 무너지면서 아론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 떠나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서구 문명의 위기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원리의 거부로 작품 속에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서 로티는 자식에게 헌신하는 어머니 그리고 도외시되고 있는 부부 관계, 궁극적으로는 남자로서의 남편에 대한 부정 등으로 처음부터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백공작』(*The White Peacock*)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방적이다시피 도외시되고 있는 남편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 작품은 부부간의 긴장된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묘사되고 있는 두 부부의 대면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He did not talk much, but seemed to think about something. His wife resumed her sewing. She was acutely aware of her husband, but he seemed not very much aware of her. (14)

이 언급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서로에 대한 부정이 누구에서부터 비롯되었든 간에, 그 시각이 이전의 작품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남자의 외면으로 그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론의 시각으로 무관심이 제시된다고 해도 로티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Suddenly the door opened. His wife emerged with a pail. He stepped quietly aside, on to his side garden, among the sweet herbs. He could smell rosemary and sage and hyssop. A low wall divided his garden from his neighbor's. He put his hand on it, on its wetness, ready to drop over should his wife come forward. But she only threw the contents of her pail on the garden and retired again. She might have seen him had she looked. He remained standing where he was, listening to the trickle of rain in the water-butt. (53)

다분히 표현이 절제되어 있지만, 두 부부 사이의 소원한 관계로 인한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아론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로티에게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 4장 'the Pillar of Salt'와 11장 'More Pillar of Salt'에서 아론은 로티와 화해를 시도 하지만 로티는 이를 거부한다. 특히 11장에서 로티는 냉정하고 완고한 태도를 보이면서 서로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 가고 그를 비난한다.

이처럼 두 부부의 소원한 관계가 그 관계의 원인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 간에 남자의 시각으로 비롯되고 있는 것은 이후 아론이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이 작품 속의 개연성을 위한 로렌스의 배려인 동시에, 로렌스의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남녀의 투쟁에서 남자가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까지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점은 이 작품에서 아론의 부인인 로티가 서두 몇 장면에서만 등장하고 이후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작품 전체를 통하여서도 기존의 로렌스의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여느 여성의 모습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아론 역시 가출과 귀향을 반복하거나 가출하면서 가정의 경제를 배려하면서 가정의 토대인 여성의 원리를 거부하면서도 이를 탈피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이 작품에 있어서의 전개상의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로렌스는 후에 릴리를 등장시킴으로서 이를 얼마 정도 보완하고는 있지만 서두에서 보이고 있는 아론의 모습은 로렌스의 다른 작품 속에서는 보기 힘든 모호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아론은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인생의 의미를 아내와 자식에게서 발견하지 못한다. 그가 자신의 가정을 버려야겠다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공허한 삶을 보충하기 위하여 술, 여자 그리고 무엇

보다도 음악에 자신의 정력을 몰입하며 여성원리에 대한 반항과 극복의 노력을 보여주지만 그가 가출을 결정하는 무렵에 이르러서는 그 어느 것에서도 위안을 얻지 못한다.

No, there was something in him that would not give in neither to the whiskey, nor the woman, nor even the music. (31)

이 '무엇인가(something)'를 아론은 자신이 가정을 버리고 길을 떠날 때까지 알지 못한다.

대신에 자신이 없어도 자신의 가정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리라는 사실(83)과, 자신이 버리고 떠나는 자신의 부인, 자식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만을 인식한다.

아론이 그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작품에서의 또 다른 주인공인 릴리가 필요하다. 이 작품에서 가장 극적이고, climax를 이루는 부분은 아론이 릴리를 만나는 대목으로 이 후의 이야기가 사족에 가까우리 만큼, 이 부분에서 작품의 모든 의미가 다 언급되어 지고 있다.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 악단에 가입한 아론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런던 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진 채 릴리에게 발견된다. 릴리는 자신의 아내 타니(Tanny)가 해외로 떠난 후라, 아론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그를 정성스레 간호한다. 의사는 아론이 단순한 감기에 걸려 있지만 그가 회복하려는 의지, 즉 삶에 대한 욕구의 상실이 간단한 병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충고를 한다(117). 릴리는 아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는 다레스키(H. M. Daleski)의 주장처럼 아론의 고립감이 그들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의 역할을 한 것이다.(The Forked Flame: A Study of D. H. Lawrence 199)

릴리는 아론이 이러한 상실감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파악하고 또한 아론을 공감하게 된다(113). 릴리는 아론의 회복을 위하여 아론에게 오일 마사지를 시작한다. 이러한 긴밀한 남자대 남자의 접촉은 로렌스의 여타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이 작품에서처럼 하나의 독립된 긴밀한 관계로서 전개되는 예는 드물다. 이 작품에서 이 오일 마사지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의미는 다양하다. 하나의 엄숙한 의식으로(Daleski 29) 오일마사지는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Walker 27).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처럼 아론에게 새로운 형태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아론은 여성원리를 탈출할 수 있게 되는 힘을 릴리에게 받게 된다.

오일 마사지에서 아론이 자신의 가정을 버리게 된 동기를 발견하게 된다. 오일 마사지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는 남자대 남자의 결합은 남자와 여자간의 결합인

결혼이 궁극적으로 남자에게 부담 지워주는 책임감에서 벗어난 문자 그대로 순수한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결혼에 대한 릴리의 언급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arriage altogether, I think.

*Egoisme a deux-*

'What's that mean?'

'*Egoisme a deux?* Two people, one egoism. Marriage is a self-conscious egoistic state, it seem to me.' (122)

이어 릴리에게 아이가 있느냐는 아론의 질문에 부인 Tanny는 아이를 원하고 있지만 자신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원하지 않으며 현재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자신으로서의 하나의 행운이라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 when a woman has got children, she thinks the world wags only for them and her. Nothing else. The whole world wags for the sake of the children-and their mother' (122)

릴리의 이러한 두 언급을 종합해 보면, 그는 결혼을 '두 사람이 모여 서로가 자기본위적인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Egoisme a deux*)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결혼의 이 여성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이후로 남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여성 본위적인 삶에 왜곡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아론은 이러한 릴리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또한 이 공감은 아론 자신이 자신의 가정을 버리게 된 보다 근본적인 근거를 릴리를 통하여 제공받는 것이 된다. 즉, 아론의 가출은 이러한 왜곡된 결혼 생활로부터의 회피, 보다 엄밀하게 본다면 그 왜곡된 생활을 야기한 여성의 'motherhood'의 거부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릴리와 아론간의 오일 마사지가 지니는 또 다른 의미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간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론과 릴리 두 사람 모두는 오일 마사지라는 긴밀한 육체적인 접촉을 갖고 난 후에 서로의 견해에 깊은 공감을 갖게 되는데, 특히 아론은 결혼이 올바른 남녀관계에 있어서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릴리의 견해에 동조하며 여자를 맹렬히 비난한다.

... they(women) look on man as if he was nothing but an instrument to get and rear children. If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a woman, she thinks it's because you want to get children by her. And I'm damned if it is. I want my own pleasure, or nothing; and children be damned.' (123)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두 사람은 모두 결혼이 남녀 관계를 왜곡시킨데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원동력은 '아이'라는데 동조하고 있다. 이 점은 아론이 '아이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른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123)라는 독설적인 언급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릴리는 결혼이라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차지하는 이 '아이'라는 개념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

Men have got to stand up to the fact that manhood is more important than childhood-and then force women to admit it.' . . . And, if they think you try to stand on your legs and walk with the feet of manhood, why, there isn't a blooming father and lover among them but will do his best to get you down and suffocate you-either with a baby's napkin or a woman's petticoat.' (123)

즉, 릴리는 남자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이 아이를 가진 성모(sacred mother)라는 위치로 바뀌게 되면서 남자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우월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또한 많은 남성들에 이에 동조하여 결혼이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여 릴리는 왜곡된 결혼 그리고 왜곡된 남녀 관계를 개선할 것을 역설한다.

That's why marriage wants readjusting-or extending-to get men on to their own legs once more, and to give them the adventure again. (124)

또한 릴리는 기존의 결혼이 자신의 언급에서처럼 '재조절'되고 '확대'되었을 때 보이는 궁극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엿볼 수 있다.

And can you find two men to stick together, without feeling criminal, and without cringing, and without betraying one another? You can't. One is sure to go fawning round some female, then they both enjoy giving each other away, and doing a new grovel before a woman again.' (124)

릴리의 이러한 언급은 기존의 남성들이 여성에게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한 혐오감이지만 이를 역으로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인간 관계에 대한 바람인 것이다.

그는 남자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을 남자대 남자간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그가 아론에게 행한 오일 마사지는, 왜곡된 남자와 여자간의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남자대 남자간의 결합

에 대한 표출인 것이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에서의 지배권에서 벗어난 이후의 문제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두 사람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릴리는 아론에게 오일 마사지를 하고 난 뒤 잠든 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난하던 부인 타니의 언급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다.

She(Tanny) says I want power over them. What if I do? They don't care how much power the mob has over them. Lloyd George and Northcliffe and the police and money.

They'll yield themselves up to that sort of power quickly enough, and immolate themselves pro bono publico by the million. . . . Why can't they submit to a bit of healthy individual authority? The fool (Aaron) would die, without me . . . (p. 119)

물론 이 언급에서 사람들이 복종해야 하는 '건강한 개인'은 릴리 자신을 칭하는 말이다. 이 언급을 이전의 남자와 남자간의 결합이라는 언급과 연관지어서 볼 때, 릴리는 남성이 여성에게 벗어나 바람직한 관계라는 남자와 남자간의 순수한 관계를 획득한 이후의 주도권을 원하고 있으며 그 지배하에 아론까지를 포함하고 싶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릴리는 물론 아론이 예수를 배반한 유다처럼 자신을 배반하리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120). 릴리는 자신이 원하고 있는 주도권이 여성이 남성에게 대한 지배나 문명화된 현대 세계가 인간 개개인 위에서 군림하는 형태와는 다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Higher types breed slower. I would have loved the Aztecs and the Red Indians. I know they hold the element in life which I am looking for-they had living pride. . . That was true blood. It wasn't frightened. All the rest are craven-European, Asiatics, Africans . . . (119-120)

그가 이상적인 혈통이라고 여기는 아즈텍인(the Aztecs)이나 레드 인디언(the Red Indians)의 공통적인 요소는 문명이나 제도에 물들지 않는 건장한 'manhoodness'로 볼 수 있다. 결국 릴리는 어떠한 제도나 좀더 포괄적으로는 문명에 오염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남성다움을 꿈꾸며 그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릴리의 이러한 언급은 한때 로렌스가 영국 넓게는 유럽 세계에 대한 심한 환멸감으로 인하여 꿈꾸어 오던 '돈과 권력에 대한 추구 대신에 개인적 자유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육체의 완전한 성취를 추구한다는 이상향 라니님(Raninim)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남자대 남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세계는 기존의 문명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이며 또한



그 릴리는 그 세계에 지도자로서 군림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반면에, 아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릴리와 의 긴밀한 육체적 접촉을 한 이후에 보다 바람직한 인간 관계의 추구에 몰입하게 된다. 그는 릴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남자와 남자간의 결합 이후의 주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부인 로티와의 관계에 자신의 견해를 재고하는데 주력하며, 또한 자신 스스로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주력한다. 이는 가정이라는 속박에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여서의 지배력에 탈출한 아론으로서는 당연한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이점이 아론과 릴리의 차이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 . . there was profound hostility between them. . . . But most irritating of all was the little man's unconscious assumption of priority. Poor Lily was actually unaware that he assumed this quiet predominance over others. (129)

Pinion은 이 작품에는 두 개의 연관된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개인적(personal) 것으로, 나머지는 정치적인(political)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아론은 남성과 여성의 왜곡된 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서 서로의 자아가 손상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남성 대 남성의 관계를 설정하는 남성의 원리로 들어가는 과제를 안게 된다.

### Ⅲ. Manhood의 확립

로티의 여성원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아론은 이를 포기하고 다시 릴리를 따라 이태리로 간다. 아론은 가정이라는 속박에서 탈출하여 릴리를 만난 이후 가정과 결혼 궁극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계에 어렴풋이나마 눈을 뜨기 시작한다. 이후 아론은 또 하나의 여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 두 번째의 여정은 첫 번째의 여정이 탈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면 이 두 번째의 여정은 성배를 찾아 길을 떠나는 기사처럼 순례에 가깝다. 아론은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짙막한 귀향은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론의 본격적인 여정의 시발점이 되며 또한 이후에 전개될 그의 고독한 투쟁의 의미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아론과 로티의 짙막한 재회는 다음과 같은 서로 간의 다짐으로 끝난다.

Come life, come death, she too would never yield. And she realized now

that he would never yield . . . He too would never yield. The illusion of love was gone for ever. Love was a battle in which each party strove for the mastery of other's soul. Now he was fighting for it back again. (155)

이를 통하여 볼 때, 로티에게 있어서는 애초의 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와 릴리와와 만남이 그의 의식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후의 아론의 여정은 여성에게 빼앗긴 남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manhood'의 확립이 되리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아론의 여정이 'manhood'에 대한 여정이 되리라는 점은 이 작품의 타이틀인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아론은 릴리와 서로 헤어지기 직전에 그의 플루트를 꺼내어 연주를 한다. 릴리는 그의 연주를 듣고 다음과 같이 아론에게 말한다.

'Aaron's rod is putting forth again,' he said, smiling.  
'What' said Aaron, looking up.  
'I said Aaron's rod is putting forth again.'  
'What rod'  
'Your flute, for the moment.' (132)

릴리의 이러한 언급은 다분히 암시적이고 또한 상징적이다. 그는 이 'rod'를 좀더 비약시키고 있다.

'You-with your rod, your flute-and your charm-you can always do as you like' (133)

'rod'가 지니는 일반적인 상징의 속성과 릴리의 언급 중 'charm'이라는 의미를 연관 지어 보면 그것이 남근숭배 이미지(phallic image)를 의미하는 것임을 쉽게 간파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후의 아론의 여정이 아론의 'rod'에 꽃을 피우기 위한 즉, 'manhood'를 지향하는 여정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로티와의 짧은 재회 후에 또 다시 집을 나선 아론의 런던의 무미 건조함에 환멸을 느끼고 먼저 이탈리아의 노바라(Novara)에 있던 릴리의 편지를 받고 이태리로 향한다. 이태리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이태리 행을 알리는 편지를 릴리에게 띄우나 서로 엇갈리는 통에 아론은 윌리엄(Sir. Williams)이라는 이태리의 귀족 집에 뜻하지 않는 손님으로 머물게 된다. 아론은 그날 저녁 결혼과 애정에 대하여 그 집의 주인과 손님들과 가벼운 논쟁을 벌인다.

Then upon what grounds did you abandon your family? . . .  
 'There were no grounds . . . I just left them.' . . .  
 It happened to me: as birth happen to me once- and death will happen . . .  
 as undeniable as either. And without any more grounds. (176)

이러한 논쟁은 아론에게 자신의 여정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 그는 이태리에서의 첫날밤을 지내고 난 뒤 조용한 이태리의 아침 속에서 시내와 굽이치는 강물을 바라보며, '긴 잠에서 깨어야 할 시간임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183). 이는 아론의 내면세계를 일깨우는 순간을 나타내며 새로운 자아를 찾게 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아론은 로티와 자신과의 투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 . . she, as woman, was the centre of creation, the man was but an adjunct. She, as woman, and particularly as mother, was the first great source of life and being, and also of culture. The man was but the instrument and the finisher. She was the source and the substance . . .  
 Woman, the life-bearer the life-source. (192)

아론의 '남성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부가물이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견해는,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던 릴리의 견해에 대한 반복에 불과하다. 그러나 로렌스는 이를 좀더 비약해서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다.

We, of course, in our long-drawn-out Christian day, man is given and woman is recipient. Man is the gift, woman the receiver. This is the sacrament we live by; the holy communion we live for. (200)

이 뿌리깊은 여성의 우월감이 이처럼 이 작품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그 우월감을 야기시킨 서구 문명에 대한 로렌스 자신의 환멸감의 반영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서구의 기독교 문명이 전개되어 발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낸 제도 속에서 남자가 얽매이면서 남자와 여자간의 관계가 반전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로렌스가 그 서양의 기독교적인 물질문명에 환멸을 느끼고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하려는 것처럼, 아론도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전도된 관계를 수긍하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그가 첫 번째 가출에서 의식하던 '그 무엇인가'를 좀더 확연하게 깨닫게 된다.

Born in him was a spirit which could not worship woman: no, and would not. Could not and would not. It was not in him. (193)

로렌스 자신의 여성 혐오감에 대한 발로가 아닐까 할 수 있을 정도로 'not'을

반복하는, 아론의 이러한 인식은 그가 릴리와와의 만남을 통하여 나누던 대화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으로부터의 속박에 대한 강한 혐오감이 자신의 본능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론의 의식적인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론은 서구 문명이 지닌 기독교적 가치관과 물질 문명에 의하여 남녀 관계가 전도됨으로서 문혀 버린 ‘사랑’의 참다운 모습에 대하여 사색한다.

Two eagles in mid air, maybe, like Whitman's Dalliance of Eagles.  
Two eagles in mid-air, grappling, whirling, coming to their intensification of love-oneness there in mid-air. In mid-air the love consummation. But all the time each lifted on its own wings: each bearing itself on its own wings at every moment of the mid-air love consummation. That is the splendid love way. (202)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로렌스가 『왕관』(*The Crown*)에서 제시한 사자와 일각수가 받치고 있는 왕관에 비유한 남녀 관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큰 차이점은, 기존의 로렌스의 작품에서처럼 이 작품에서는 실질적인 여성 주인공이 없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아론 자신이 그러한 사랑이 결코 달성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201)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이 후 아론의 투쟁은 적수가 없는 묘한 싸움의 양상을 띠게 되고 만다. 즉, 그가 이후의 투쟁을 통하여 남성으로서의 전도된 위치를 바로 잡는다고 해도 그러한 투쟁의 결과를 여성이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이, 위의 언급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돌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즉 새로운 하나의 환경을 하나의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나 아론에게는 짤막짤막하게 등장하는 자신의 부인 로티만큼의 결단력도 보이지 않는 인물이다. 로렌스는 이 점을 염려해서인지 직접 소설 속에 개입하여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Don't grumble at me then, gentle reader, and swear at me that this damned fellow wasn't clever enough to think all these smart things . . .  
(199)

따라서 이후의 아론의 계속되는 여정은 서구 문명 자체로 인하여 남녀 관계가 왜곡되었다는 거창한 명제 아래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문명을 부정하고 새로운 문명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투쟁보다는, 결국에는 그 문명에 의하여 억압된 ‘manhood’를 복구하려는 투쟁으로서 그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아론이 자신의 계속되는 여정을 통하여 커다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대신 본능적으로 자신의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만을 느낄 뿐이다. 그가 자신의 여정에 대하여 일종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밀란(Millan)을 거쳐 플로렌스에 당도하였을 때이다. 그는 피아자(Piazza)거리에서 벌거벗고 있는 거대한 남성의 조각상들을 보게 된다. 아론의 이 조우는 그가 최초 릴리와와의 만남에서 느끼던 충격만큼 이 작품 속에서 극적인 대목이다.

And above all, their sharp, almost acrid, mocking expression, the silent curl of the nose, the eternal challenge, the rock-bottom unbelief, and the subtle fearlessness. The dangerous, subtle, never-dying fearlessness, and the acrid unbelief. But men! Men! A town of men, in spite of everything. The one manly quality, undying, acrid fearlessness. The eternal challenge of the unquenched human soul. Perhaps too acrid and challenging to-day, when there is nothing left to challenge. But men—who would neither justify themselves nor apologise for themselves. Just men. The rarest thing left in our sweet Christendom. (254-5)

가치가 전도된 기독교사회(Christendom)에서 생존하여 있는 이 'town of men'에 아론은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감명을 통하여 아론은 남자로서의 활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그 활력을 통하여 남자로서의 원래의 자리로 복구할 수 있다는 확신까지도 느끼게 된다. 바야흐로 '아론'의 'rod'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짐으로 아론이 느끼게 되는 첫 번째의 양상은 그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다'(255)라는 사실이다.

아론이 자신의 내부에 지니고 있는 'manhood'를 플로렌스의 동상을 보고 인식하고 난 뒤 그 'manhood'에 대한 의미를 보다 강화시켜 주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먼저 모든 속박을 거부하고 혼자 살기를 강조하는 알자일(Argyle)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p. 260) 피아자거리를 지나가다 여러 명의 군인들이 그를 스치고 지나간 뒤 그는 자신의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것을 알게 된다. 이 사건은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것으로 남성의 'manhood'가 문명의 힘에 의하여 남성 자신들도 모르게 여성들에 의하여 소매치기 당한 후 지배권마저 넘겨주고 말았다는 것으로도 비약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을 이후의 아론의 의식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I should be always on my guard: always, always, with God and the devil both, I should be on my guard. Godly or devilish, I should hold fast to my reserve and keep on the watch. And if I don't, I deserve what I get. (274)

아론의 이 언급은 전도된 남녀 관계의 책임이 남성에게 있으며 또한 그 복구 또한 남성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이 작품 속에서 가장 뚜렷하고 자신에 차 있는 인물로 변화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내부에 형성된 'manhood' 즉, 'phallic vitality'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는 델 토레(Del Torre)라는 후작의 부인인 마체사(Marchesa)라는 미국 여인을 만나 자신이 운명적으로 그녀의 정부가 될 것임을 감지한다(296). 아론은 그녀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자신의 플루트로 반주를 해 준다.

아론은 이러한 그녀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rod'가 다시 꽃이 피고 있음을 느끼며(301), 심지어는 자신을 'wonder maker'(300)이라고까지 여기게 된다.

그러나 아론의 이러한 'manhood'는 그가 이후 그녀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결합(connexion)을 이루려 할 때는 오히려 장애가 되고 만다.

He found her strange, not as he had imagined her. Not powerful, as he had imagined her. Strange, in his arms she seemed almost small and childish, whilst in daily life she looked a full, womanly woman. Strange, the naked way she clung to hem! Almost like a sister, a younger sister! Or like a child! It filled him with a curious wonder, almost a bewilderment. In the dark sightlessness of passion, she seemed almost like a clinging child in his arms. (305)

그는 심지어 이러한 그녀를 통하여 재 속에서 다시 살아 오르던 'phoenix'에 그녀가 찬물을 끼얹는 것(303)과 같은 심한 절망감을 느끼고 그녀에게서 멀어지려고 한다. 이는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이 요원한 것이라는 로렌스의 냉소적인 의식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아론이 자신의 품에 있는 마체사를 철없는 어린아이로 여기고 있는 것을, 여성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전의 언급과 비교하여 보면, 아론의 'manhood'가 그만큼 성숙되고 독자적인 의치로 성숙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성숙을 통하여 아론은 '자신이 혼자이고, 혼자 살아가야만 하고, 이러한 사실이 모든 지식의 본질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최후의 축복'(289)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아론의 역할은 이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끝이 나게 된다. 이후 아론은 릴리와 다시 만나게 된다. 아론이 릴리를 만나게 되면 앞에서의 지적대로 이 작품이 제시하는 두 가지의 주제 중에서 정치적인 주제로 전환되게 된다.

즉, 릴리가 의도하는 남자대 남자의 관계 이후의 지배에 관한 주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아론은 릴리를 만난 이후 자신의 기나긴 여정을 통하여 획득한 'manhood'가 릴리 앞에서는 무력해짐을 느끼게 된다.

Aaron knew that he could depend on the other man for help, nay almost for life itself - so long as it entailed no breaking of the intrinsic isolation of Lilly's soul. But this condition was also hateful. And there was also a great fascination in it. (290)

릴리의 앞에서 아론이 느끼는 이러한 무력감이 그가 마체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환멸을 느끼고 있을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론이 보다 더 큰 무엇인가에 굴복하고 말리라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아론의 좌절은 조금은 상징적이지만 매우 적나라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가 조그만 카페에 릴리를 위시한 몇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카페는 테러 분자의 폭격을 받게 된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아론은 먼저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플루트를 찾는다. 그러나 그의 플루트는 산산조각이 난 채로 단지 몇 조각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아론은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He felt utterly, utterly overcome - as if he didn't care what became of him any further. He didn't care whether he were hit by a bomb, or whether he himself threw the next bomb, and hit somebody. He just didn't care any more about anything in life or death. It was as if the reins of his life slipped from his hands, and he would let everything run where it would, so long as it did run. (330)

결국 아론은 자신이 힘들여 획득한 'manhood'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만다. 릴리는 아론에게 플루트 조각을 강물에 버리라면서 상심에 찬 아론을 위안한다.

There goes Aaron's Rod, then, he said to Lilly.  
'It'll grow again. It's a reed, a water-plant. You can't kill it,' said Lilly, unheeding.  
'And me'  
"You will have to live without a rod, meanwhile.  
To which pleasant remark Aaron made no reply (331)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rod) 없이 살아가는 동안 아론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다.

아론은 자신이 결국 누군가에게 굴복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하게 되는 굴복에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가 없다면 그의 기나긴 여정은 그저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이 후 아론은 릴리가 조종하는대로 이끌리는 수동자의 입장으로 탈바꿈하고 만다. 그러나 이 언급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대단히 이러한 결정은 작위적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 작품에는 릴리의 어떠한 점이

아론으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개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점을 의식해서인지 로렌스는 아론에게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337)며 얼버무리고 있다.

릴리는 아론에게 ‘유일한 목표는 각 개개인의 영혼이 이끌리는 것을 성취하는 것’(344)라며 그에게 또 하나의 선택을 강요한다.

물론 릴리는 결국 인간이 수궁해야 하는 이러한 ‘power-urge’를 자신이나 아론이 혐오하고 있는 왜곡된 남녀 관계를 야기 시킨 ‘love-urge’와 분명한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다(346). 또한 릴리는 인간이 결국은 수궁해야 할 이 ‘power-urge’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충동을 집행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346).

이를 통하여 볼 때, 릴리는 아론을 초월하여, 아론이 긴 여정을 통하여 도달한 지점 너머에 서서 이후의 문제에 대해 아론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아론과 릴리의 대화로서 끝을 맺고 있다.

‘You will, when all men want it. All men say, they want a leader. Then let them in their souls submit to some greater soul than theirs. . . . And you know it. But you kick against the pricks. And perhaps you’d rather die than yield. And so, die you must. It is your affair.’

There were long pause. Then Aaron looked up into Lilly’s face. It was dark and remote-seeming. It was like a Byzantine eikon at the moment.

‘And whom shall I submit to?’ he said.

‘Your soul will tell you,’ replied the other. (347)

물론 아론의 영혼이 말해 주는 인물은 ‘릴리’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릴리가 의도하는 바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여성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manhood’를 확보한 남자들이 이룬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맺음은 이 작품에서 결코 매끄러운 결론이 되지 못한다. 아론의 기나긴 여정이 여성의 혐오스러운 지배욕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릴리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점이 릴리의 ‘권력’에의 충동에 대한 역설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결론을 이 작품을 쓰던 당시 로렌스가 라니님(Raninim)이라는 이상향의 건설을 꿈꾸고 있었다는 전기적인 사실과 결부 지어 보는 것이 다소 설득력이 있다. 알딩턴(Aldington)은 이 작품의 서문에서 아론은 로렌스의 친구 머레이(Murray)를 모델로 릴리는 로렌스 자신을 근거로 하여 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9). 즉, 로렌스는 자신이 꿈꾸던 이상향에 거주하는 ‘manhood’를 지닌 남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스스로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Aaron knew that he could depend on the other man for help, nay almost for life itself - so long as it entailed no breaking of the intrinsic isolation of Lilly's soul. But this condition was also hateful. And there was also a great fascination in it. (290)

릴리의 앞에서 아론이 느끼는 이러한 무력감이 그가 마체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환멸을 느끼고 있을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론이 보다 더 큰 무엇인가에 굴복하고 말리라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아론의 좌절은 조금은 상징적이지만 매우 적나라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가 조그만 카페에 릴리를 위시한 몇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카페는 테러 분자의 폭격을 받게 된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아론은 먼저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플루트를 찾는다. 그러나 그의 플루트는 산산조각이 난 채로 단지 몇 조각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아론은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He felt utterly, utterly overcome - as if he didn't care what became of him any further. He didn't care whether he were hit by a bomb, or whether he himself threw the next bomb, and hit somebody. He just didn't care any more about anything in life or death. It was as if the reins of his life slipped from his hands, and he would let everything run where it would, so long as it did run. (330)

결국 아론은 자신이 힘들여 획득한 'manhood'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만다. 릴리는 아론에게 플루트 조각을 강물에 버리리면서 상심에 찬 아론을 위안한다.

There goes Aaron's Rod, then, he said to Lilly.  
 'It'll grow again. It's a reed, a water-plant. You can't  
 kill it,' said Lilly, unheeding.  
 'And me'  
 "You will have to live without a rod, meanwhile.  
 To which pleasant remark Aaron made no reply (331)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rod) 없이 살아가는 동안 아론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다.

아론은 자신이 결국 누군가에게 굴복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하게 되는 굴복에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가 없다면 그의 기나긴 여정은 그저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이 후 아론은 릴리가 조종하는대로 이끌리는 수동자의 입장으로 탈바꿈하고 만다. 그러나 이 언급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대단히 이러한 결정은 작위적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 작품에는 릴리의 어떠한 점이

아론으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개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점을 의식해서인지 로렌스는 아론에게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337)며 얼버무리고 있다.

릴리는 아론에게 ‘유일한 목표는 각 개개인의 영혼이 이끌리는 것을 성취하는 것’(344)라며 그에게 또 하나의 선택을 강요한다.

물론 릴리는 결국 인간이 수궁해야 하는 이러한 ‘power-urge’를 자신이나 아론이 혐오하고 있는 왜곡된 남녀 관계를 야기 시킨 ‘love-urge’와 분명한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다(346). 또한 릴리는 인간이 결국은 수궁해야 할 이 ‘power-urge’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충동을 집행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346).

이를 통하여 볼 때, 릴리는 아론을 초월하여, 아론이 긴 여정을 통하여 도달한 지점 너머에 서서 이후의 문제에 대해 아론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아론과 릴리의 대화로서 끝을 맺고 있다.

‘You will, when all men want it. All men say, they want a leader. Then let them in their souls submit to some greater soul than theirs. . . . And you know it. But you kick against the pricks. And perhaps you’d rather die than yield. And so, die you must. It is your affair.’

There were long pause. Then Aaron looked up into Lilly’s face. It was dark and remote-seeming. It was like a Byzantine eikon at the moment.

‘And whom shall I submit to?’ he said.

‘Your soul will tell you,’ replied the other. (347)

물론 아론의 영혼이 말해 주는 인물은 ‘릴리’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릴리가 의도하는 바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여성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manhood’를 확보한 남자들이 이룬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맺음은 이 작품에서 결코 매끄러운 결론이 되지 못한다. 아론의 기나긴 여정이 여성의 혐오스러운 지배욕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릴리에게 굴복해야 한다는 점이 릴리의 ‘권력’에의 충동에 대한 역설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결론을 이 작품을 쓰던 당시 로렌스가 라니님(Raninim)이라는 이상향의 건설을 꿈꾸고 있었다는 전기적인 사실과 결부 지어 보는 것이 다소 설득력이 있다. 알딩턴(Aldington)은 이 작품의 서문에서 아론은 로렌스의 친구 머레이(Murray)를 모델로 릴리는 로렌스 자신을 근거로 하여 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9). 즉, 로렌스는 자신이 꿈꾸던 이상향에 거주하는 ‘manhood’를 지닌 남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스스로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 VI. 결론

이 작품은 총 21 chapter로 이루어져 있으나,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각 에피소드가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따로 곁돌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더불어 릴리와 아론이라는 두 명의 주인공이 표방하는 주제가 서로 융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두 인물 중 로렌스의 기존의 작품들에서처럼 늘 등장하고 있는 로렌스의 다른 자아(alter ego)는 릴리일 것이다. 그러나 로렌스는 작품이 전개되어 갈수록, 특히 후반부에 두드러지지만, 릴리를 너무나 자신의 의도에 짜 맞추려는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애초 주인공인 아론의 이야기가 그만큼 설득력을 잃고 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비록 후반부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는 있지만, 아론의 여정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인간 관계의 문제이다. 로렌스의 작품에서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는 인간관계, 특히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에 빠진 여인』을 이 작품과의 경계선에 위치한 작품으로 볼 때, 강한 여성의 생명력(vitality)에 남성이 굴복하거나, ‘대립’과 ‘투쟁’의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이 작품은 아론이 바로 그러한 여성의 생명력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며 집을 나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반발은 릴리라는 정신적인 동조자를 만나게 됨으로써 보다 강화되고, 그 반발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이게 된다.

그들은 남성이 여성에게 억눌리는 왜곡된 남녀관계가 서구 문명이 지닌 기독교적 가치관과 결혼이 지닌 궁극적인 가치관이 ‘아이’를 낳는데 있다는 왜곡된 가치관에서 기인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결국 이러한 견해는 상실된 남성의 권위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아론과 릴리는 남성의 권위를 회복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을 ‘manhood’의 회복으로 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 ‘manhood’는 여성이 전적으로 배제된 남성 대 남성의 관계를 표방하는 ‘오일 마사지’를 통하여, 또한 소위 ‘a town of men’이라는 플로렌스의 거리에서 본 남성의 나체 조각을 통하여 아론이 남성으로서의 원기를 회복한다는 장면에서도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의 궁극적인 결론은 아론이 마체사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나서 그녀를 ‘자신의 팔에 매어 달린 어린아이’(305)로 여기는 대목에서 내리는 있는 것이 된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아론의 지팡이』는, 로렌스의 작품에서 등장하고 있는 남성대 여성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주도권 쟁탈의 투쟁에서 여성이 우세를 보

이는 시기를 지나 점차적으로 'manhood'를 회복한 남성이 우세를 보이는 전환기에 위치한 작품으로 보는 것이 이 작품이 지닌 나름대로의 의미인 것이다.

## Bibliography

### I. Works

Lawrence, D. H., *Aaron's Rod*,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1.

Lawrence, D. H., *Women in lov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9.

### II. Essays

Aldington, Richard. *The Sprit of Place: An Anthology Compiled the Prose of D. H. Lawrence*. London: William Heinemann Ltd., 1935.

Becker, George J., *D. H. Lawrence*.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 1980

Daleski, H. M. *The Forked Flame: A Study of D. H. Lawrence*.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1965.

Hobsbaum, Philip., *A Reader's Guide to D. H. Lawrence*. London: Thames and Hudson, 1981.

Murry, J. M. *Reminiscences of D. H. Lawrence*. London: Jonathan Cape, 1933.

Niven, Alastair., *D. H. Lawrence: The Novels*. London: Cambridge UP, 1979.

Pinion, F. B., *A D. H. Lawrence Companion*.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 1978.

Spilka, Mark., *D. H. Lawrenc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J.: Prentice Hall Inc., 1963.

Walker, Grady J. "The Influence of The Bible on D. H. Lawrence as Seen in his Novels" Ph. D. Dissertation(1972), University of Tulsa.

## ■ Abstract

Return to Manhood as Self: D. H. Lawrence's *Aaron's Rod*

Park, Jeong-Gil &amp; Kim, Dong-Yul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meanings of the process for Aaron to recover his own self, manhood. During the early period of his literary career, his approach to the human takes the form of a psychological realism which deals with the various relations between men and women.

This is not, then, 'blood' religion, nor modern sexuality, nor the vicissitudes of the industrial age which primarily interests Lawrence.

Because of his experience during World War I, Lawrence turned to a consideration of the real world in which human beings find themselves confronted by distorted notions of civilization. During and after the war, he began to grope into the heart of darkness of modern human beings. In other words, he began to search for real, desirable identities within contemporary society.

His main concern is the identity of self, that is, the real self of our inner soul, and the fragmented self at the center of our inner soul. In fact, the novels, *Aaron's Rod*, *The Plumed Serpent* and *Kangaroo* may be considered, as some critics did, to be among his weakest novels, if one views them simply from the perspective of formal aesthetic beauty. But these novels offer also the clearest presentation of his ego psychology.

*Aaron's Rod* is experimental and self-reflective. It offers a search for acceptable answers to questions put by articulate human beings. This novel experiments with different, and even contradictory notions. *Aaron's Rod*, which is regarded as the record of Lawrence's inner struggle for his manhood, is the product of his desire to secure leadership. The men in this novel live in a society which seems to them to be ruled by women and to be controlled by women's values. Aaron and Lilly try to recover their prestige and power. They argue that a man must submit for guidance to another with a greater soul, while women must submit deeply to the positive power-soul in men, for their real being.

In brief, the leadership novels offer the reader a sustained analysis of one writer's searching question for meaningful relations among human beings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